

일본, 한국 타이어코드 반덤핑 제소

화학섬유 4사,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 ... 한국제품 점유율 25%

일본 화학섬유업체가 한국산 Polyester 타이어코드 직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최근 한국산 타이어 보강재용 Polyester 타이어 코드 직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주도록 재무성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섬유 분야에서 과거 파키스탄 원면사와 한국 및 타이완산 Polyester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일본의 2003년 Polyester 타이어코드 직물 수입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1만2800톤에 달했으며 한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산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2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화학섬유업체에서는 Toray 등 4사가 Polyester 타이어코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이 아닌 개별 메이커가 덤핑제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덤핑사실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는 덤핑률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화학저널 2004/06/21>